



Tech & Stock

하나금융투자 4차산업 포트폴리오

글로벌 리서치팀(3771-7793, 7721)

▶ 하나금융투자 4차산업 포트폴리오 종목별 수익률 현황

편입 종목	주관수익률(%)	PER(배)	ROE(%)	매출액 성장률(%)	EPS 성장률(%)	실적발표일
애플	3.5	25.5	129.0	29.5	52.2	2021-07-30
아마존닷컴	4.3	50.7	25.7	27.0	75.3	2021-07-30
알리바바	(0.0)	21.9	13.8	30.4	15.7	2021-08-20
바이두	(1.1)	19.5	12.0	20.3	41.3	2021-08-13
페이스북	1.6	23.6	25.1	34.8	38.6	2021-07-30
알파벳	0.2	25.1	25.7	30.5	65.5	2021-07-30
마이크로소프트	1.2	33.6	42.6	16.2	33.5	2021-07-22
엔비디아	4.7	47.6	44.1	46.2	126.8	2021-08-19
텐센트홀딩스	0.8	33.4	18.4	22.5	(8.3)	2021-08-12
삼성전자	(0.6)	14.5	13.1	12.9	41.2	2021-07-30
넷플릭스	2.0	46.4	36.5	18.9	88.1	2021-07-21
소프트뱅크	(2.1)	11.3	10.2	(54.9)	흑전	2021-08-10
세일즈포스닷컴	1.7	63.6	10.9	22.2	(18.6)	2021-08-23
페이팔	2.5	58.8	23.4	20.6	22.1	2021-07-29
어도비	1.9	45.5	40.9	21.3	11.2	2021-09-21
서비스스나우	6.5	96.3	33.9	27.0	20.0	2021-07-29
평균	1.7	38.6	31.6	20.3	40.3	

주1: 21.6.18 종가 기준

주2: PER, ROE, 매출액, EPS 성장률은 2020년 Bloomberg 조정 실적 전망치 기준(*일부 종목은 회계기준에 따라 차기 회계연도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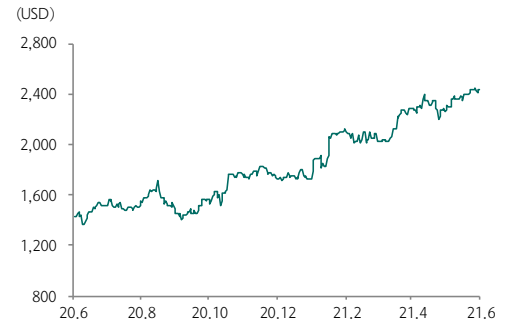
4차산업 주요 종목 주간 뉴스

1) 빅테크 빅테크 사냥꾼 리나 칸 미 FTC 위원장 내정

상장 국가	미국
섹터	인터넷
시가총액(십억달러)	-

- 바이든 정부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기업의 해체를 주장하는 강경파 학자인 Lina Khan을 FTC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공화당 양당 지지를 받아 인준
- 이번 인준에 따라서 반독점 규제에 대해 유럽에 비해 온건한 입장을 펼쳤던 미국의 태도에 변화 예상
- 하지만 당장 빅테크 그룹이 해산되거나 상당한 규제를 받을 확률은 적음. FTC는 반독점 관련 이슈를 조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법안을 제정해서 규제할 수는 없음.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체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국가가 기업을 해체한 사례는 없음
- 실제로 아마존은 최근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인 MGM을 84억 달러에 인수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음

최근 주가 추이(알파벳)



2) 아마존 COVID-19 자가진단 키트 판매 시작

상장 국가	미국
섹터	IT, 리테일
시가총액(십억달러)	1,759.7

- 아마존은 자체 개발한 COVID-19 자가진단 키트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고, 검진 결과는 아마존 진단 웹사이트에 업로드 될 예정
- 검진 키트는 39.99달러에 판매되며 미국 일부 지역은 프라임 배송 서비스를 통해 하루 안에 배송 예정
- 검진은 사용자가 해당 매뉴얼을 따라 검사 후 배송 라벨이 부착된 상자에 넣어 중앙 연구소로 보내는 방식
- 아마존은 3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COVID-19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승인 받음
- 아마존은 또한 DxTerity 사의 COVID-19 진단 키트와 Quidel 사의 10분만에 할 수 있는 진단 키트 추가 제공
- COVID-19 진단 키트는 아마존이 의료 분야로 사업 확장 후 가장 최근에 선보인 결과물이며, 3월부터 원격 진료 및 홈 케어 의료 프로그램 제공
- 또한, 아마존의 약국 서비스를 통해 6개월간의 일반 의약품 처방전을 6달러부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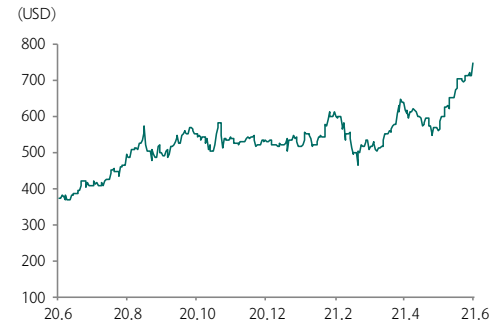
최근 주가 추이



3) 엔비디아 경쟁사들이 ARM 인수에 대해 우려 제기

상장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M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자산 재분배 과정에서 ARM 지분을 400억 달러에 엔비디아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규제당국 승인을 얻는 과정에 있음 엔비디아는 지난달 말 중국 정부에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 ARM에 대한 인수 승인 신청서 제출
미국	
섹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 발표 당시 “18개월 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 규제 당국으로 인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은 엔비디아가 규제 당국에 가로막혀 인수를 못하게 될 시, ARM에 투자하겠다고 발표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소유주인 소프트뱅크가 팔지 않고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면 다른 업계 투자자들과 함께 ARM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보도
시가총액(십억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사 퀄컴은 ARM의 설계 기술은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라이선스를 맺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시장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 퀄컴을 비롯한 경쟁사들은 엔비디아가 ARM의 칩 설계 기술로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우려 제기 엔비디아는 최근 중국 규제 당국에 거래 승인 요청을 해오고 있고, 2022년까지 인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감할 것이라고 전망
4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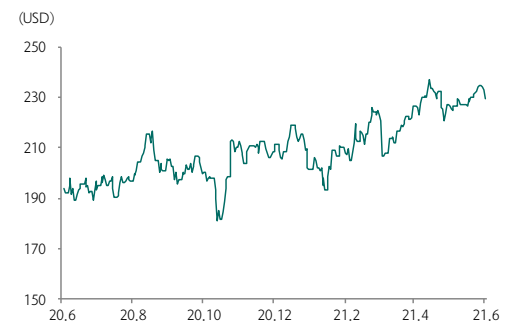
최근 주가 추이



4) 비자 신용카드 & Cross-border 결제 지표 상승 모멘텀 기대

상장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실적에서 반등 모멘텀을 이끌어갈 지표는 신용카드 결제. 빠른 백신 보급을 바탕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외식, 여행, 엔터 관련 지출에서 뚜렷한 회복세 기대. 미국의 경우 5월말 국내 여행 규모는 2019년 수준까지 회복
미국	
섹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자가 최근 발표한 월간 신용카드 지표를 보면, 5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2019년 대비 +14%로 4월 기록한 +10%에서 개선 아시아, 유럽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재확산 소식이 우려를 낳고 있으나 백신보급 등으로 각 지역별로 점진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cross-border 지표는 의미 있는 상승 추이를 보임
전자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멕시코, 호주와 뉴질랜드, 유럽 인접국가 등 가까운 지역권 안에서의 여행 지출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음
시가총액(십억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미국의 경우 백신 2차접종까지 완료 비중은 43%.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들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서 미국의 아웃바운드 여행 지표는 현재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 5월에 멕시코에서 미국인 비자카드 사용자의 지출액은 2019년 동월대비 +70% 증가 유럽의 경우 특히 관광산업이 특화된 남부 유럽국가들은 올 여름 국경을 개방을 계획하며 특히 백신접종을 완료한 미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고 있음. 백신접종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과 스페인/그리스 사이의 항공 예약은 5월에 전월대비 2.5배로 증가 Cross-border 결제지표는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 예상
495.1	

최근 주가 추이



5)페이팔 호주 6월 BNPL 서비스 론칭 & 7월 신용카드 서비스 개시

상장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이팔은 호주에 6월 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인 'Pay in 4'를 론칭하였으며, 7월에는 호주 신용카드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BNPL은 일종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로, 호주는 해당 서비스가 가장 먼저 활성화된 국가. 2021년 호주 BNPL 결제액 규모는 120억 호주달러(약 10조 5,700억원)를 기록할 전망
섹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Paypal은 1분기 실적발표에서 디지털 통화와 함께 '후불 결제 사업'을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꼽은 바 있어, BNPL이 시작된 국가인 호주로의 진출이라는 의미를 가짐
전자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호주에서, 후불서비스인 신용카드와 BNPL 서비스의 결제비중은 각각 28%와 13%를 차지하며, BNPL 시장은 Afterpay, Zip, Flexi 등이 과점. 할부서비스가 없는 호주에서 BNPL은 빠르게 성장중인 영역
시가총액(십억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y in 4'를 통해 호주 소비자들은 50달러~1,500달러 사이의 결제액을 4번에 걸쳐 분할 지불할 수 있게 되며, 판매자 계정이 페이팔에 지불하는 수수료 외 추가적인 요금을 요구받지 않음. 판매자 계정이 지불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2.6% + 30센트'로, Afterpay의 '4% + 30센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짐
32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이팔 신용카드는 7월 호주 내 5위 신용카드 사업자인 시티그룹과 협업 하에 발행될 예정. 시티그룹은 신용 카드 사업에서 물러나면서, Co-brand의 형태로 진출. 이미 호주 소비자금융 부문에서 철수하여 투자은행, 자문, 증권 서비스 등 기관 대상 사업에 집중할 것임을 공시한 바 있음

최근 주가 추이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1년 6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2021년 6월 21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